

해외 주요 뉴스

이번 주 해외뉴스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리스크 공시 규칙안을 둘러싸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SEC를 압박하고 나섰다는 소식을 들려드립니다. SEC는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기후 리스크 공시 규칙안에 대한 공공 의견 수렴 과정을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UN 기후정상회의 관련 소식과 그리고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ESG와 관련하여 독점금지 조항을 위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는 소식 등을 들려드립니다.

0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기후 리스크 공시 규칙안을 둘러싼 찬성 측과 반대 측의 활동 관련 기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가 기후 리스크 공시 규칙안(상장 기업들에 기후변화 관련 금융 리스크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이래 동 규칙안에 대한 찬반 여론이 격화되어 왔습니다. 이제 이 규칙안이 완성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해당 규칙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은 각각 SEC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 SEC는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위 규칙안에 대한 공공 의견 수렴 과정을 다시 진행하고 있고, 기업들, 산업 협회들, 정치인들은 위 공공 의견 수렴의 마감 기한인 11월 1일까지 의견을 표명할 예정임.
- ESG 친화적인 기업들과 단체들은 SEC에 위 규칙안으로 인해 기업의 중대한 기후 변화 관련 리스크 공시 방안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런던의 금융 싱크탱크인 카본 트랙커(Carbon Tracker)는 기업 산업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하는 134개 다국적 기업을 조사한 결과 모든 기업들이 2021년 재무제표에서 기후변화 관련 영향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SEC에 전달했음.
- ESG 지지자들은 많은 기업들은 기후 리스크와 ESG 정보를 자발적인 판단에 따라 공개하며,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기업의 금융 실적과 지속가능성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정보를 알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해 왔음.

- 위 규칙을 제안한 이후 SEC 위원장과 직원들은 위 규정이 제정될 경우 해당 규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과 150차례 만남을 가졌음. SEC와 만남을 가진 기업들은 석유 및 가스 기업인 BP, 코노코 필립스(ConocoPhillips), 그리고 금융기관인 블랙록(BlackRock), 바클리스(Barclays), PNC 등이 있음.

02

UN 기후정상회의가 소집되었으며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은 기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관련 기사

UN이 기후정상회의를 최초로 개최한 1995년 이래 처음으로 미국은 UN 기후정상회의에서 통 큰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에 거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신규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이러한 노력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는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 지난주 월요일에 개최된 UN 기후정상회의의 개회사에서, UN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이는 우리가 액셀을 밟으며 ‘기후변화 지옥’이라는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발언했음.
- 10월에 발표된 UN 보고서에 따르면 현 기후변화 정책을 유지할 경우 2100년까지 지구 기온은 2.8도 상승하게 됨. 과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올 경우 지구에 대규모 사막화 현상, 수천만 명의 기후 난민 발생, 극지방 빙원 융해, 동식물의 대규모 죽음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
- 이번 기후정상회의는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Sharm el-Sheikh)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번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도 기후변화로 인해 다양한 재난이 발생했음. 올해 여름 발생한 파키스탄의 홍수, 지난 8월 시베리아에서 발생한 산불, 유럽이 겪은 기록적인 더위, 동부 아프리카의 가뭄, 그리고 지난 10월 플로리다를 휩쓴 허리케인 ‘이언’ 등이 그 예임.
- 이번 기후변화 관련 논의에서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유럽의 난방비 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 부족 및 식량 가격 상승 등이 고려요소로 작용하였음. 비록 브라질에서는 아마존 삼림 파괴가 가속화되었던 기간 동안 브라질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였음

나 당선되지 못했다는 소식도 있었으나,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양원 다수석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며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어젠다에 제동이 걸린 상황임.

- 미국 바이든 정부는 기후, 보건, 세금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은 청정에너지에 대한 3,7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책이 들어 있음. 기후 에너지 해결 센터(Center for Climate and Energy Solutions, 이하 “C2ES”)는 위법이 제정된 것이 “8개월 전, 심지어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에도 큰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평했음.
- 지난 수년간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은 기록적으로 증가해왔으며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20ppm을 넘어 전례 없는 수치를 기록했음. 전 세계 기후 상황에 대한 40개 지표를 분석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중 어느 지표도 글로벌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5개 지표는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함.

03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로펌에 ESG 관련 독점금지 위반에 대해 경고했음

[관련 서신](#)

미 상원 사법위원회(Senate Judiciary Committee) 소속 의원들을 포함한 5인의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50개 이상의 로펌에 서신을 보내 미 의회가 ESG 관련 독점금지 위반 소지에 대해 해당 로펌의 고객사들을 조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위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로펌이 그 고객사들에 기후변화 리스크, 다양성, 평등 및 기타 ESG 관련 정책과 관련한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경고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음.
- 위 서신을 수령한 로펌은 ESG 관련 팀이나 부서를 갖추고 있는 51개 로펌들로, 김슨던앤크러처(Gibson, Dunn & Crutcher LLP), 커크랜드앤엘리스(Kirkland & Ellis LLP) 등임.
- 위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 리나 칸(Lina Khan) 위원장과 FTC 독점금지부서가 참여한 독점금지 소위원회 청문회를 언급했음. 그 당시 리나 칸 위원장은 특정한 예시를 들지는 않았지만, 기업의 ESG 이니셔티브가 반경쟁과 연관이 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ESG 정책들이 FTC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음.
- 위 상원의원들은 위 언급을 인용하며 기업들이 화석 연료 생산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줄이는 등 ESG 지표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담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음.

- 위 상원의원들은 서신에서 “향후 몇 개월 또는 몇 년 동안 미국 의회는 ESG의 미명 하에 자행되는 독점금지 위반 사례에 대한 감시 권한을 집중적으로 사용할 것이며, 이러한 위반 사례를 FTC와 법무부에 보고할 것입니다. 귀 법무법인이 고객사에 ESG 이니셔티브 참여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자 하는 한, 귀 법무법인과 귀하의 고객사들은 이러한 조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음.

04

미 연방준비제도, 기후변화 관련 분석 업무 진행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The Federal Reserve, 이하 “연준”)가 기후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리스크를 평가할 방법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단, 연준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주요한 책임은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 연준은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연준의 기후변화 관련 책무는 “중요하지만 협소하다.”고 말했음.
- 연준은 “전례 없는 기후변화의 성격”을 언급하며 규제기관들이 기후변화가 은행 안정성 및 금융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음.
- 연준의 기후변화 관련 시나리오 분석 업무는 “각 금융기관에 대한 기후변화 리스크와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기후변화 리스크 양쪽 모두를 평가하는 작업”을 포함함.
- 연준은 이러한 리스크를 이해하기 위해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음. 연준은 국제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등 다국적 포럼에 참여하며 기후변화 관련 감독 활동에 참여하는 다른 중앙은행의 사례 또한 참고하고 있다고 밝혔음.

05

공화당 패트릭 투미 상원의원이 ESG 평가기관에 평가에 사용한 방법론을 밝힐 것을 요구함

관련 기사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의 공화당 소속 패트릭 투미(Patrick J. Toomey) 상원의원은 ESG 관련 평가를 조사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 기관에 자료를 요구했으나 대상 기관 중 약 절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음:

- 패트릭 투미 상원의원은 ESG 평가기관에 두 차례 서신을 보내 ESG 평가에 사용하는 방법론에 대해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음.
- 첫 번째 요청서에서 패트릭 투미 상원의원은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관련 부담, 제3자 데이터의 신뢰성, ESG 점수지표에 정치적 이슈의 개입 여부, 이해관계 충돌 여부 등에 대해 질문했음.
- 패트릭 투미 상원의원은 요청서를 보낸 12개사 중 6개사가 해당 요청서에 응답하지 않거나 응답이 미비했다고 밝혔음.
- 투미 상원의원은 “자산 배분과 관련하여 ESG 요소를 사용하는 것은 의회와 규제기관에서 여야를 막론한 관심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평가기관들은) 기업에 관한 제3자 데이터와 평가 결과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금융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적하며, “그러나 이러한 제3자 데이터의 진실성, 평가 방법론의 불투명성, 이해관계의 충돌 등과 관련하여 미국 의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한 정당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음.

기타뉴스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이하 “ISSB”)가 새로 발표할 ISSB의 기후 관련 공시 기준에는 기업들이 기후변화 회복탄력성에 대해 보고할 때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임. ISSB 13명 위원들은 만장일치 결정을 통해 이와 같이 결정했음. ISSB는 기후 시나리오 분석 관련 지침을 만들 때 기후 관련 금융정보공시 태스크포스(Task Force for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정보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위 방안은 기후 관련 공시에 초점을 맞춘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최종안에 포함될 예정임. ([관련기사](#))

국내 주요 뉴스

이번 주 국내뉴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오픈한 '사회적 가치 자가측정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1회용품 규제가 강화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시행 소식과 산업부가 발표한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안내합니다.

01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화폐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자가측정 서비스'를 11월 1일 오픈하고, 사회적 가치의 '자동 측정', '보고서 생성', '공시', '검증'의 서비스를 제공함 [보도자료](#)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셜벤처의 자생적 움직임을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18. 5월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이 대책의 일환으로 소셜벤처 판별 기준을 만들고, 소셜벤처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가치평가모형을 민간과 함께 개발함.
- '20년에 가치평가모형 개발에 착수해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중점사회영역 선정, 표준 지표 및 산식을 개발했고 '22. 10월 사회적 가치 자가측정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완료함. 이번 사회적 가치 자가측정 서비스는 글로벌 임팩트 측정관리 프레임워크인 아이엠피(IMP) 방법론을 적용했으며, 7개 중점 사회영역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음.
- 7개 중점 사회영역은 1) 취약계층 소득증대, 2) 자원순환을 통한 폐기물 배출 감소, 3) 교육·훈련 접근성 개선, 4) 건강증진 접근성 개선, 5) 장애인 보조 제품·서비스접근성 개선, 6) 대기·수질오염 저감, 7) 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임.

02

매장 내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 사용의 제한과 관련해 대폭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1월 24일 시행할 예정임 [보도자료](#)

-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을 금지함.

6

- 대규모점포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뿐 아니라 1회용 우산 비닐의 사용이 규제됨.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대상 사업자에 제과점업·종합 소매업(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추가됨. 다만,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의 사용은 제외됨.
- 체육시설에서 1회용 응원용품의 무상제공이 금지됨. 단,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그 사용이 금지됨.
- 위반 시 업소의 규모와 위반의 경중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03

산업부는 지난 11월 3일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5대 정책방향 제시 및 16개 과제를 도출함 보도자료

- 산업부는 1)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2) 비용효율적이고, 3) 계통 및 4)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5) 국내산업 발전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라는 5대 정책방향을 제시함.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기존 30%에서 21.6%로 재설정하고, 이에 맞춰 '23년부터의 RPS 의무비율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며, 태양광, 풍력 발전량 비율이 현재 약 87:13에서 '30년 60:40이 되도록 풍력발전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비용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REC 가중치 제도, 입찰 제도 등을 개선하여 소규모에 유리한 개발 보급 방식을 개선하기로 하고, 한국형 FIT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하여 일몰 또는 전면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임. 풍력은 발전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풍력입찰시장 도입 확대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현 RPS제도를 종료하고 경매제도 전환을 검토할 계획임.
- 금번 발표는 앞으로의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이에 따라 개별 정책을 추진하고, '23년 개정 예정인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보다 구체적인 계획은 반영할 예정임.

ESG 센터 주요 소식

- 법무법인 지평 · BSR, 15일 ‘디지털 환경에서 기업의 책임과 공급망 인권실사’ 세미나 (법률신문, 2022. 11. 4.)
- 법무부 · 대한변호사협회, ‘기업과 인권 세미나’ 개최(머니투데이, 2022. 10. 28.)
- “인권문제 실사 의무화 코앞...기업들 변화 불가피”(한국경제, 2022. 10. 29.)
- LH, 제3회 LH 글로벌 비즈니스 컨벤션.. 11월 2일 열려(뉴스메이커, 2022. 11. 1.)
- 여성벤처협회, 다음달 10일 여성벤처 혁신성장 포럼 개최(우먼스플라워, 2022. 10. 31.)
- ISSB, 기후공시 요건으로 시나리오 분석 요구한다(임팩트온, 2022. 11. 7.)
-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등 《중대재해처벌법 연구 I》 출간(법률신문, 2022. 11. 8.)
- 한국경쟁법학회, 4일 ‘새 정부 공정거래정책의 과제와 전망’ 학술대회(법률신문, 2022. 11. 1.)
- 漁선원 안전 노사정 합의 1년 지났는데...이행은 ‘허송세월’[노동:판](노컷뉴스, 2022. 11. 9.)

법무법인(유) 지평 ESG센터/ FiscalNote Korea Contact

임성택 ESG 센터장 / 대표변호사	T. 02-6200-1746	E. stlim@jipyong.com
민창욱 파트너변호사	T. 02-6200-1841	E. cwmin@jipyong.com
정영일 경영연구그룹 그룹장	T. 02-6200-1803	E. yichoung@jipyong.com
지현영 변호사	T. 02-6200-1913	E. hyjee@jipyong.com
손민경 FiscalNote Korea 대표	T. 010-3809-1592	E. liz.sohn@fiscalnote.com